

아쉬운 경희고 이번년도 두 번째 준우승

#다음은 #우승이다



지난 31일 백록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 결승전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우승 경험이 있는 대구대륜고와 디펜딩 챔피언인 서울경희고가 맞붙었습니다.

경희고는 경기 골 클럽U-18, 대전유성생명과학고를 각각 3:0, 1:0으로 이기며 조별리그를 통과하였고, 24강에서 경기청담FC U-18을 2:0으로, 16강에서 서울경신고를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여 8강에 올라 충북청주대성고를 이기고 4강에서 인천부평고를 2:0으로 이겨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의 전반전은 경희고가 주도했습니다. 경희고 최도윤 선수의 크로스가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대륜고 골키퍼가 제대로 쳐내지 못하여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은 대륜고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후반 23분 대륜고가 슬라이딩 슈트로 동점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후반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경희고는 승부차기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희고 1번 키커인 권재범 선수의 슈트를 대륜고 골키퍼가 선방했고, 2번 키커인 이수환 선수의 슈트가 골대를 맞고 나왔으며, 3번 키커인 변준수 선수가 슈트를 성공하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희고는 2년 연속 우승을 놓쳤습니다. 이수환 선수가 우수선수상, 변준수 선수가 수비수상을 받았지만 지난 무학기 준우승에 이어 또 다시 준우승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07 박승훈, 20111 손예준-

유전자 편집기술 특강

#CRISPR #DNA #모기



8월 14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되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자율동아리 I.M.E.(Intensive Medical Education)에서 주최한 이날 특강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허준호 교수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허준호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우리 실생활과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도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곡식인 GMO를 사용하여 만드는 음식들이 많고,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유전병들을 치료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나아가 CRISPR(특정 부위의 DNA를 편집할 수 있는 효소)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을 설명하였는데, 말라리아 같은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질병 등을 박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3세대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4세대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유전자 편집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강의하였습니다.

강연에는 경희고등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약 20개 학교에서 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유전자 편집 기술



이 발달하면 인간들이 보다 쉽게 건강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고 유전병과 관련된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이 무조건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연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419 장강원, 20825 우지하-

서울 경희고등학교 축구부 8년 만에 서울 대표로 전국체전 무대를 밟다!(6.28~7.4)

#축구 #전국체전 #가즈아 #경희 파이팅

경희고는 지난 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고등부 대표선발 대회에서 송실고를 1-0으로 누르고 2011년 전국체전 이후 8년 만에 본선에 올랐습니다. 100회를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홈팀으로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경희고는 지난달 무학기 전국대회 결승전에서 태성FC팀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준우승의 아쉬움을 잊고 경희고는 서울예선에서 라이벌 팀인 언남고를 승부차기 끝에 4-2로 한양공고를 (2-0)으로 중경고를 (2-1)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송실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과는 달리 전반전 후반부터 경희고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기세가 후반까지 이어져 후반전 12분 전경진 선수가 하프라인부터 60m 드리블 후 오른발 강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송실고는 결정적 슛을 날렸으나 경희고의 수문장 권재범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끝내 송실고는 경희고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경희고가 서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107 박승훈-

아마 전교생 모두 시험 약 1달 전부터 이 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때 집중도 열심히 하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공부하고 많이 힘들었던 만큼 모두 다 잘보고 원하는 성적만큼 나왔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업준비 하시고, 시험문제 출제하신 담당 선생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12 박서진-

헌혈 행사(7.5)

#선행 #용기 #자랑스러운 학생들

2019년 7월 5일, 경희고등학교에서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헌혈은 자신의 피를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혈액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헌혈가능 인구의 수가 감소함으로서 혈액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헌혈로 최대 세 명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lood_info/220351244964

-20304 김근석-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7.1~7.4)

#성적 #고생 #스트레스 #후련함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시행되었습니다. 3학년 선배님들은 마지막 시험, 1, 2학년들은 계속 시험을 봐 성적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2학년의 시험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교시	2학년
7/1	1	영어1
	2	화학1
	3	동아시아사
7/2	1	수학2
	2	지구과학1
	3	경제
7/3	1	수학1
	2	생명과학1
	3	사회문화
7/4	1	문학
	2	정보
	3	정치와법/물리학1

전일제 봉사(7.10)

#머리카락 기부 #소아암 환자 #다양한 봉사

7월 10일 수요일에는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전일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날에는 하루 4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하고 하루 동안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다 제각각 봉사활동 장소를 정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은 어머니 운동본부라는 곳이며 머리카락을 기부 받아서 편지와 함께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기부 받은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편지를 분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기부한 사람

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부자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카락을 기부할 생각은 못해봤지만 이번 활동 이후로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필요한 친구들이 하루빨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봉사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알려져서 더 많은 머리카락이 기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도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도 느낀 것이 많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11 손예준-

7월 10일에 전일제 봉사활동으로 저는 '대한민국 전문가 자원봉사연합회' 라는 곳에서 모집하는 4차 산업포럼 전 보조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전문가 자원봉사연합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9개 서비스 산업체 봉사회인 한국의료자원봉사회, 미용봉사회, 요리봉사회, 집수리봉사회, 가전제품수리봉사회, 한전봉사회, 사진 봉사회, 문화예술봉사회, 주부모니터봉사회가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정신인 "나눔과 비움"인 나비 운동을 봉사단 상호 연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문가 자원봉사연합회 목적은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존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아름다운 행복 나눔"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별, 지역별 등 여러 형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작게는 가족 공동체, 크게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전문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산업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모발 기부자들의 편지도 보면서 멀리 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이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20204 김민성-



*봉사했어요~~

향림원 봉사활동(7.10)

#편견 #타파 #평등 #행복한 사회



2019년 7월 10일, 경희고등학교 봉사단체 사임당 클럽 학생들은 향림원을 찾았습니다. 향림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림원의 주된 목적은 국가 경제의 침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향림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2학년 한수현 학생은 인터뷰에서 평소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마트에서 쇼핑을 해보면서 '장애인은 기피 대상이다.'라는 편견을 다시금 깰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향림원을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익한 봉사활동~~~

-20208 김정현-

경희수학저널(7.15)

#수학적 사고력 #수상

경희수학저널은 수학 이론 탐구대회와 통계 포스터 만들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나열되어있는 저널입니다. 지난 7월 동안 2번의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수학 이론 탐구대회와 수학 통계 활용 대회입니다. 수학 이론 탐구 대회는 수1, 수2와 관련된 이론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수학 통계 활용 대회는 우리 주변에서 주제를 하나 골라 요구하는 과정을 거친 뒤 통계를 내어 포스터를 만드는 대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수상하게 됩니다. 상을 받으면 저널에 실리게 되고, 강당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희 수학 저널입니다. 입상자들에게만 배포된 경희 수학 저널은 수상한 수학 이론 탐구 대회와 통계 활용 대회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수학이 아닌 새로운 방면에서의 수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입상자는 경희 수학 저널에 이름까지 올려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20401 강수영-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면서 학년간의 어색한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을 대표해서 교내 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경희고등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는 학생들

임원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습니다. 레저스포츠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때 보다 질서가 무너져서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질서나 기본적인 예의는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고쳐나가야 할 요소로 질서나 예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희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1·2학기 임원수련회 (7.17~7.18)

#추억 #리더십 캠프 #1박2일 #임원



*수련회 시작~~~

2019년 1,2학기 회장단과 학생회 임원(약124명)들이 무사히 임원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원코리아 클럽'이라는 수련회 장소에서 1박 2일 임원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요, 1박 2일 동안 실시했던 주요 활동은 레저스포츠, 임원단 토의, 사격, 양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미필이에요..

-20808 김준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7.17)

#오용 #남용 #금지 #새로운 지식

경희고등학교 강당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는 말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인 오용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여 문제가 되는 남용을 합친 말로 최근 약물의 오남용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을 인지시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들(항생제, 진통제, 종합 감기약, 눈약 등)을 중심으로 약물 오남용의 자세한 사례들을 배우며 평소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약들이 여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했고 또한 다이어트 약이나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약들이 단지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였다는 사실은 몇몇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견문을 넓힘으로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만든사람들 교지편집·기자반

- 김도현, 박승훈, 손예준, 송창학, 김민성, 김정현, 김근석, 박건우, 강수영, 김준원, 박서진